

대전시티즌 열 번째 사령탑 이영익 감독 취임

“챌린지 우승 올인, 축구특별시 명성 찾을 것”

경험 풍부 노련한 명장

현대미포조선 수석코치로 지도자 길
FC 서울·상무·경남서 노하우 축적



이영익 감독이 10여 년 만에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열 번째 수장 자리를 맡기 위해서다. 이 감독은 17일 월드컵 경기장 인터뷰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이면 창단 20돌로 의미 있는 시즌에 감독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우선 챌린지(2부 리그) 우승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축구특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과거 몸을 담았던 만큼 팀 정서를 잘 알고 있고, 타 팀에서 지도자생활을 할 당시 제3자의 눈으로 대전을 보면서 느꼈던 보완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감독은 “재미있는 또는 공격적인 축구로 나누기 보단 현실적인 축구를 할 것이다. 승점을 쌓고 승리를 하는 그야말로 이

이기는 축구로 보답!

경험있는 선수 위주 강팀 구축 초점
애크터 1인 추가 4인 용병 체제 구상

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며 “상대팀으로 대전과 경기를 펼쳤을 때 선수들 연령층이 낮았던 것이 아쉬웠다. 경험있는 선수들이 리딩을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내년 선수단은 경험 있는 선수 위주로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용병에 있어서 외국인 쿼터 3인에 아시아 쿼터 1인을 더해 총 4명의 용병을 공격수와 중앙수비 또는 중앙미드필더로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은 올해 K리그 챌린지 시즌이 마무리되면 선수단 구성과 동계훈련 등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그는 신뢰는 곧 실력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이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그라운드를 뛰는 것은 선수들이다. 근성과 절실함, 화합할 수 있는 팀 분위기 조성과 신·구조화를 이뤄내 모두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엔 특히 중요한 해다. 대전시민들과 서포터



대전시티즌이 17일 제10대 이영익 감독 취임식을 연 가운데 (왼쪽부터)황인범 선수, 이영익 감독, 윤정섭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즈 응원 의 힘을 받고 챌린지 우승이란 목표로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감독은 동북중-동북고-고려대를 거쳐 1989년 럭키금성(현FC서울)에 입단,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현대 미포조선 돌고래축구단 수석코치를 시작으로 지도자 길로 들어섰다. 2003~2007년에는 4년간 대전시티즌수석코치로 근무하며 대전 축구

특별시 도약에 일조했다. 또 2009년~2012년까지는 FC서울 U-18(18세 이하) 감독으로 유소년 축구 발전에 이바지했고 2013~2015년엔 상주상무 수석코치, 2015년부터는 경남FC 수석코치로 역임하는 등 다년간 풍부한 경험에서 축적된 현장정보와 축구지식, 노하우를 쌓았다.

정관목 기자 dnc@gyilbo.com

설 틈 없는 손흥민, 웨스트햄전 나서나

월드컵 최종예선 마치고 토트넘 복귀
20일 프리미어리그 12R 선발 전망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우즈베키스탄전을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한 손흥민(토트넘)이 웨스트햄전에서 제2야망을 준비한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2시 30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라인에서 열리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연고지 라이벌 웨스트햄과 맞붙는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A매치 기간 직전이던 맨체스터 시티전 2-0 승리 이후 리그 4무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컵대회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무 2패로 부진했다.

선두를 넘보던 성적은 5승 6무(승점 21)로 어느새 5위까지 떨어진 만큼, 이번 라운드에서 17위 웨스트햄을 상대로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기는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손흥민은 9월에는 리그 이탈리아의 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펄펄 날았지만, 10월 A

매치 기간 이후 공격 포인트가 전혀 없을 정도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토트넘에서의 강행군, 상대의 집중 견제,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우측으로의 포지션 이동 등이 요인으로 꼽혔지만, 10월 A매치 기간 국가대표팀 경기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한 것이 컨디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팀 A매치 기간 손흥민은 캐나다와의 친선전을 건너뛰고 우즈베키스탄과의 월드컵 최종예선에만 출전, 풀타임을 소화했다.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김신욱(전북) 투입 직전까지 팀 내에서 공격 활보를 펼친 것은 손흥민의 움직임이었다.

손흥민은 우즈베키스탄전 후 언론 인터뷰에서 “발목이 아프지 않아 걱정 없이 마음껏 뛰었다”면서 “소속팀에 복귀해서도 치료를 잘 받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벨리 알리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크고 ‘부상 병동’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토트넘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실업축구 현대미포조선 ‘아름다운 퇴장’

모기업 재정악화 올 시즌 끝 해체 결정
NL 리그 우승상금 5천만원 전액 기부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올 시즌 우승상금을 전액 기부한다. 현대미포조선은 17일 “2016 내셔널리그 우승상금 5000만 원을 한국실업 축구연맹에 발전기금

으로 내놓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구단은 올해를 끝으로 내셔널리그를 떠나지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우승상금을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미포조선은 1998년 창단해 18년 동안 실업축구를 호령했다. 올 시즌엔 강릉시청을 꺾고 챔피언 결정전 4연패 금자탑을 쌓았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은 모기업

이 주력하고 있는 조선업 침체로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해체하기로 했다. 선수단은 신생 구단 안산 시민축구단(가칭)에 흡수돼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현대미포조선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팬 여러분과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한 감독님과 선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 살려야 해! 17일 델러스의 포워드 드와이트 포웰이,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위치한TD가든에서 펼쳐진 보스턴과의 미국 프로농구 NBA경기에서 코트 밖으로 나가는 볼을 몸을 던져 팀 동료에게 패스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보스턴이 90-82로 델러스를 꺾었다.

연합뉴스

‘캔턴’ 신지에 한국 골프를 부탁해!

내달 여자프로골프대회 ‘더퀸즈’ 한국 주장 선발

신지에(28)가 오는 12월 열리는 여자프로골프 팀 대항전 ‘더퀸즈’ 대회 한국대표팀 주장으로 선발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선수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신지에가 주장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지에는 한국 무대에서 20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1승,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13승을 올렸고, 이번 시즌에도 일본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상금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지에는 “국가대항전에 참가할 때마다 막

내었는데 어느덧 주장이 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다양한 투어 경험을 살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12월 2일부터 사흘간 일본 미요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호주까지 4개 투어 선수들이 출전한다. 총상금은 1억 엔이며, 1라운드 포스트 매치플레이, 2라운드 포스트 매치플레이를 통해 포인트를 많이 쌓은 상위 두 팀이 최종라운드에서 우승 결정전을, 하위 두 팀이 3.4위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소득왕’ 메시, 올 한해 소득 954억 원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6년 30세 이하 소득 상위 30명(30 Top-earning celebrities under 30 of 2016)’에서 스포츠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4위를 기록했다.

포브스는 16일 메시가 지난 1년 동안 8150만 달러(약 954억 원)를 벌였다는 이 돈에는 FC 바르셀로나로부터 받은 연봉과 주요 스폰서와의 계약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메시의 주급은 27만 5000 파운드(약 4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대신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아 지급을 불렀다. 그러면서 포브스는 메시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면서 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선수 가운데 메시 뒤를 잇는 건 데니스 스타 조코비치(29·세르비아)다. 포브스는 조코비치가 상금과 스폰서 계약을 추가해 올해만 5600만 달러(약 656억 원)의 수입으로 공동 6위에 올랐다고 집계했다.

연합뉴스

인디애나, NBA동부지구 선두 클리블랜드 격파

홈경기서 103-93으로 제압

미국프로농구(NBA)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동부컨퍼런스 선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잡았다. 인디애나는 17일 미국 인디애나주 뱅커스 라이프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폴 조지(21점), 제프 티그(20점)가 공격을 이끌며 클리블랜드를 103-93으로 물리쳤다. 인디애나는 6승6패로 승률 5할을 맞췄고, 클리블랜드는 이번 시즌 두 번째 패배(9승)를 당했다. 클리블랜드의 간판스타 르브론 제임

스는 휴식을 취하느라 이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3쿼터가 끝날 때 80-68로 앞서간 인디애나는 케빈 러브(27점)와 카이리 어빙(24점)을 앞세운 클리블랜드의 추격에 4쿼터 한때 4점 차로 쫓기기도 했다. 그러나 인디애나는 종료 5분 10초를 남기고 C.J. 마이클스의 3점슛으로 97-84를 만들며 클리블랜드의 추격권에 벗어났다. 골든스테이트는 토론토 랩터스를 127-121로 꺾고 5연승을 달렸다. 스테판 커리가 35점, 케빈 듀랜트가 30점을 넣어 골든스테이트의 연승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 오늘의 경기

▲프로농구 = LG-동부(창원실내체육관) 케이터-전지랜드(부산사직체육관·이상 19시)

▲여자 프로농구 = KEB하나은행-신한은행(19시·부천실내체육관)

▲프로배구 = 남자부 OK저축은행-우리카드(19시·안산 상록수체육관)

▲쇼트트랙 = 제33회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회(9시·강릉 아이스아레나)

▲배드민턴 = 전국가을철총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10시·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